

불탑신앙관과 민속

왜 탑을 돌까? 탑을 도는 이들의 신앙과 민속

심재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사

목차

- I. 들어가는 말
- II. 역사 속의 불교, 신앙 속의 불교
- III. 민속연행으로 재현되는 탑돌이
- IV. 불교민속에서 탑돌이의 상징적 의미
- V. 나가는 말

국문초록

타파, 스투파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불탑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곳이라는 것이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탑은 예배와 공경의 상징조형물로서 무한한 공덕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이런 불탑이 다양한 양식과 형태로 사찰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말씀을 다룬 경전에서 보인다. 그러므로 불탑의 연구는 사찰 내에서 대웅전의 상징적인 의미에 버금가는 상징조형물로서 불교교리연구뿐만 아니라 불교신앙의례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놓인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불탑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적인 조형미와 건축사에서 가람 형식에 대한 연구와 함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 성과가 도출된 바 있다.

탑돌이에 대한 연구는 ‘불교민속’에서 연구한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불교에서 사찰 내 위치한 탑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신도들의 탑돌이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과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민간신앙과 불교가 습합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불교사찰에서 나타나는 칠성각, 산신각 등 도교와 민간 신앙과의 호흡을 통해 불교가 현지화되는 과정 속에서 각 부분들과 연관하여 탑돌이는 불교경전에서 나오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역사적으로 실존 여부에 대한 부분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 가람 배치 내의 탑의 성립과정과 상징적 의미보다 불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탑돌이’를 민간 의례의 한 형태로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주제어 : 탑돌이, 불교민속, 불교의례, 민속연행, 무형문화재

I. 들어가는 말

타파, 스투파 등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불탑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한 곳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교에서 석가모니부처님 열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불탑은 예배와 공경의 상징조형물로서 무한한 공덕과 복을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을 준다.

이런 불탑이 다양한 양식과 형태로 사찰 내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석가모니부처님의 말씀을 다룬 경전에서 보인다. 그러므로 불탑의 연구는 사찰 내에서 대웅전의 상징적인 의미에 버금가는 상징 조형물로서 불교교리연구뿐만 아니라 불교신앙의례의 상징적인 조형물이 놓인 장소로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불탑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적인 조형미와 건축사에서 가람 형식에 대한 연구와 함께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연구 성과가 도출된 바 있다. 그러나 불탑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무형적인 요소인 ‘탑돌이’¹⁾에 대한 연구는 미술사, 건축사에서 나온 연구 성과와 견주어 보기에는 매우 부족한 부분이 많다.

탑돌이란 무엇일까? 과연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탑돌이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고자 한다. 논문을 구성해 나아가면서 탑돌이와 관련한 기존 연구 성과와 관련 자료들이 상당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다. 그러나 기 발표된 연구 자료들은 발표자가 의도하고 있는 민속학적 시각에

1) 아직 한국에서 '탑돌이'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다. 국립민속박물관의 한국세시풍속사전/여름/의례편/ “사월 초파일에 사찰에서 봉축행사를 마친 다음 탑을 돌며 개인과 가정의 평안을 기원하는 풍속. 예전에는 밤을 지새우며 탑돌이를 하였으나, 최근에는 해가 진 다음 연등(燃燈)을 들고 정근(精勤)하며 1~2시간 만에 마친다. 탑돌이는 초파일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각종 불사(佛事)를 회향할 때 하는 행사다. 또한 민간에서 전승되던 탑돌이는 이 불교의식에서 유래한 것이다.”라고 용어정리가 되어 있다.

서 접근하고자 하는 필자의 관점과 다른 연구 성과를 담은 자료들이 대부분이었다.

탐돌이에 대한 연구는 ‘불교민속’에서 연구 주제로 다루어야 하는 논의의 대상 중 하나로 보인다. 그것은 탐돌이의 행위 자체가 시각적으로 인지되는 탑의 형상과 탑이 불교에서 가지고 있는 석가모니부처님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의미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탐돌이’라는 행위는 사람(民)이 행하는 의례이다. 민속학은 사람들의 관습, 풍속을 연구하는 학문이므로 탐돌이는 사람이 행하는 의례의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불교민속의 관점, 또는 민속학의 관점에서 탐돌이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인 연구가 선행²⁾되었다. 이는 다른 연구 분야에 비해서 연구대상으로서 탐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연구의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하여 단편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시사한 부분일 수도 있다.

탐돌이는 연등회 행사의 부속 행사로 행하여지고 일정 시기에 주기적으로 행해지는 의례로 본다면 민속학에서 말하는 세시풍속의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2) 탐돌이 의례에 대한 문헌적인 조사연구로는 박은애의 「三國遺事」感通‘金現感虎’條에 나타나는 신라 탐돌이의 양상과 성격, 신라문화 제20호, 2002 연구가 신라시대에 탐돌이가 유행하였음을 보여주었다. 이기선의 「한국 금당의 평면구성과 예불공간 : 요잡과 요도의 개념을 중심으로」, 문화사학 No27, 2007에서 불경과 문헌에서 불상, 불탑 등의 주변을 도는 의례에 대한 연구는 불경 등의 문헌을 통해서 중국과 한국에서 불교의 의례 중에서 탐돌이 의례가 중요한 의례였음을 보여준다. 김준오·천득염의 「탐돌이 유형과 민속적 전개」, 남도민속연구, V.22, 2011 연구에서는 인도의 스투파에 대한 조사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내의 탐돌이에 대한 민속학적인 연구를 하였다. 엄중섭(자현)은 「佛敎塔의 구조와 탐돌이에 대한 고찰」 한국선학, v.37 2014에서 불교탑의 구조와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예경방식으로서 탐돌이연구를 하였다.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되었다는 기록이 남은 것은 고구려·백제·신라가 있었던 삼국시대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에 인류가 생존하면서 국가체제가 성립되기 이전, 또한 불교가 전래되기 이전에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해 보면서 탑돌이에 대한 접근을 조심스럽게 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한국불교에서 사찰 내 위치한 탑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신도들의 탑돌이에 대한 민속학적 접근과 해석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민간신앙과 불교가 습합되는 과정 속에서 한국불교사찰에서 나타나는 칠성각, 산신각 등 도교와 민간 신앙과의 호흡을 통해 불교가 현지화되는 과정에서 도출되는 여러 가지 민속학에서 보는 의례의 하나이며 그 의례는 여전히 사람들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는 행위로 보고자 한다.

다만 탑돌이는 불교경전에서 나오는 석가모니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역사적으로 실존 여부에 대한 부분은 밝히기 어려운 부분이지만 가람 배치 내의 탑의 성립과정과 상징적 의미보다 불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탑돌이’를 민간 의례의 한 형태이면서 민속연행의 한 연구사례로 보고 본 논문에서 논의를 전개해 보고자 한다.

II. 역사 속의 탑돌이, 신앙 속의 탑돌이

의례가 행해진다는 것은 그 행위 자체만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의례가 행해지는 것은 그것이 행해지는 공간이 필요하다. 탑돌이 의례는 인도에서는 스투파에서 행해졌고 중국에서는 인도에서 들어오는 불교의 영향으로 타파를 중심으로 배치하는

탑사의 형식을 사용하였으며 탑돌이 의례가 행해졌다. 가람의 배치
가 탑을 중심으로 배치된 한국사찰의 형태를 통해 탑돌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탑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탑돌이는 의례를 위한 공간이
가지는 상징적이면서 실제적인 부분이 한국사찰의 가람 배치가 가지
는 부분이 탑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탑은 탑돌이 의례가 이루어지는
의례 공간이다.

탑돌이 의례에 관한 문헌 사료는 여러 경전과 자료에서 찾을 수 있
다. 우선 그 대표적인 경전 중 하나는 7세기 말에 저술된 법원주립
(法苑珠林)을 들 수 있는데 제37권 경탑편(敬塔篇) 제오선요부(第五
旋繞部)에서는 탑을 돌면 생기는 복덕(福德)과 탑을 도는 방법에 대
하여 언급하고 있다. 또한 탑을 도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미를 부여
하고 있다.

법원주립 제20권 치경편(致敬篇) 第伍회통부(會通部)에서는 ‘....
인도의 경배는 중국과는 같지 않다. 저들은 절하는 것은 적고 요잡이
많은데, 우리는 절하는 것이 많고 요잡이 적으며....’라고 하여 인도와
중국의 요잡(繞匝)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었다.³⁾

그리고 한국에서의 탑돌이 의식은 인도 불교의식에서 유래한 것
으로 지속적인 적용과 변화되면서 전통적인 불교의식 행위와 민속
의례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 본래의 의식연행은 사찰에서 석가탄신
일이나 큰 재(齋)가 있을 때 절에서 승려와 신도들이 밤새도록 탑을
돌면서 부처의 큰 뜻과 공덕을 기리고 소원성취 기원을 위한 것에서
점차 불교가 세속화되면서 민간에서 풍속놀이화 되었다. 이러한 풍

3) 안대환, 김성우 (2014), 5세기 고구려 사찰의 8각 목탑에서 탑돌이시설의 가능성. 대한건
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30(6), p.107. 인용

습은 석가 생존 시 제자와 신도들이 석가에게 경배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3번 돌았다는 예법으로 ‘우유삼잡(右繞三匝)’ 방식에서 유래한 것으로 본다.⁴⁾

한국 고대의 민속을 고스란히 전해주는 문헌은 고려 충렬왕 때의 보각국사 일연(1206-89)이 편찬한 <삼국유사>를 손꼽을 수 있다.

신라의 풍속에 매해 중춘(仲春)에 이르러 초8일부터 15일까지 도성의 남자와 여자들이 흥륜사(興輪寺)⁵⁾의 전탑(殿塔)을 다투어 돌면서 복회(福會)⁶⁾로 삼는다. 원성왕대 낭군(郎君) 김현(金現)이라는 자가 밤이 깊도록 홀로 쉬지 않고 돌고 있는데 한 처녀가 염불하며 따라 돌았고, 서로 마음이 맞아 눈길을 보냈다. 돌기를 마치자 가려진 곳으로 이끌고 들어가 통정하였다. 처녀가 장차 돌아가려고 하자 김현이 그를 따라갔다.

新羅俗每當仲春初八至十五日 都人士女競遶興輪寺之殿塔爲福會

元聖王代有郎君金現者遶相感而目送之 遶畢引入屏處通焉女將還現從之⁷⁾

4) 김준오, 천득염 (2011). 탑돌이 유형과 민속적 전개. 남도민속연구, 22, p.48.

5) 신라의 불교전래 및 공인과정과 연관되어 가장 일찍 국가적 사찰로 창건되었고 신라 왕경 내 칠처가람(七處伽藍)터 중의 하나인 천경림(天鏡林)에 건립되었다. 신라에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 온 최초의 승려 阿道가 창건한 사찰이라 전하며 법흥왕 14년 이차돈의 순교와 함께 신라의 대가람으로 증창되어 544년(眞興王 5년)에 완공되었다. 흥륜사는 대법회를 주관하는 도량으로서, 왕실과 국가의 제앙을 물리치고 복을 비는 영험의 가람으로 존중되기도 하였다(강인구·김두진·김상현·장충식·황폐강, 《역주 삼국유사》 I, 이회문화사, 2002, p.266)

6) 복을 빌기 위한 모임으로, 신라에서 복회가 시작된 확실한 연대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본조의 기록에 의하면 원성왕대는 이미 복회가 행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복회에 대한 것은 아니나, 탑돌이에 관한 것으로는 《삼국유사》 권4 의해5 義湘傳敎와 賢瑜伽海華嚴條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국정신문화연구원편, 강인구 외 《역주 삼국유사》, 이회문화사, 2003, 293쪽).

7) 《삼국유사》 卷4 感通7 金現感虎條

불교에서 탑을 조성한 것은 석가모니가 열반한 이후 화장하고 남은 사리를 사리구 등에 담아 탑에 안치 하여 그것을 보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사리를 가운데 넣고 쌓아 올린 탑이 부터와 동일시되어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더해질수록 탑에 대한 신심도 함께 배가 되어가게 되었다. 그것이 탑을 향한 불탑신앙으로 불교가 전파된 각 나라에서는 각자 고유의 형식을 가진 탑을 조성하게 되었다.

불교의 전파와 부처에 대한 신앙심이 더해질수록 탑 자체에 대한 신앙으로 발전되어 왔으며 탑에 대한 경외심과 이것이 신앙으로 발전되어 탑돌이라는 일련의 의례행위를 낳게 되었다.⁸⁾ 불교가 성행한 지역의 가람배치를 살펴보면 여전히 탑이 중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원시경전에서는 부처께 귀의하고 존경을 표할 때 부처님께 나아가 발아래 예배하고 부처님을 ‘遶匝’하는 예법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부처께 장례법에 대해 묻자 “네거리에 탑묘(塔廟)를 세워 모든 행인들이 불탑(佛塔)을 보고 여래법왕(如來法王)의 도화(道化)를 사모하여 살아서는 복리(福利)를 얻고 죽어서는 천상(天上)에 나도록 하라.”고 하였다.(『長阿含經』卷3 遊行經)⁹⁾

불교에서 탑이 가지는 의미는 단순히 가람의 배치와 관련된 부분으로 건축사, 미술사적인 시각에서 의미를 찾는 것은 본 논문의 논점과 간극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불교에서 탑이 가지는 의미는 가람의 배치와 관련하여 사찰내의 공간의 구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전제한다. 사찰 내에 위치하고 있는 탑의 위치가 가지는 의미

8) 박은에 『三國遺事』 感通 ‘金現感虎’條에 나타나는 신라 탑돌이의 양상과 성격, 신라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32, p.118.

9) 박은에 앞의 글 p.122. 재인용

는 단순한 조형물로서 탑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탑이 조성되고 신앙되는 배경과 불교경전과 경설에 근거한 이해는 불탑을 통찰하는 데 매우 중요한 지점으로 볼 수 있다.

불교경전에서 탑돌이에 대한 의례와 관련된 것은 『불설시가라윳육방예경佛說尸迦羅越六方禮經』에는 ‘부처님께서는 하늘보다 더 높을세라... 절과 탑 머리 숙여 돌고돌고 돌면서 합장하고 시방에다 예배하라.’¹⁰⁾ 라고 설하면서 탑을 도는 연유를 부처님이 하늘보다 더 높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에서 잘 살펴야 하는 것은 탑을 돌면서 염불을 하였다는 대목으로, 이는 불탑이 곧 여래이기 때문에 불탑을 돌면서 여래를 일심으로 염원하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¹¹⁾ 우요불탑공덕경(右繞佛塔功德經)에서는 모두가 몸과 마음으로 칭찬하거나 찬탄함은 오른쪽으로 탑돌이를 하였기 때문¹²⁾이다. 결국 오른쪽으로 도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승려와 신도이고 그것이 어떤 특정 시기, 시간을 주기로 반복하여 행하여지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탑이 조성된 이후 탑 내부에 모셔둔 부처님의 사리를 받들고자 사찰에서 탑돌이를 행하였다는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탑돌이는 오른 방향으로 돌게 되는 것의 다른 해석과 견해는 우견편단(右肩偏袒)¹³⁾, 즉 가사를 입을 때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10) 대정신수대장경 1권 251쪽 하단, 佛尊過諸天 鬼神不能當 低頭遶塔寺 叉手禮十方
http://21dzk.l.u-tokyo.ac.jp/SAT2012/T0000_01.0251c23:0251c23.cit

11) 우인보, 『탑과 신앙』, 서울, 도서출판 해조음, 2013, p.176

12) 대정신수대장경 16권 801쪽 皆由以身業 及語業讚歎 右繞於佛塔 右繞佛塔功德經
http://21dzk.l.u-tokyo.ac.jp/SAT2012/T0700_16.0801b23:0801b23.cit

13) http://www.culturecontent.com/dictionary/dictionaryView.do?cp_code=cp0517&dic_seq=24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탑돌이의 방향에서 보이듯이 왼쪽어깨를 감추는 연유와 같이 왼쪽은 불경스럽다고 생각하고 오른쪽은 그러하지 않다는 의미로서 탑돌이를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현세의 모든 복과 내세의 이상은 물론 다음 생까지 복덕을 지닌다.”¹⁴⁾고 설명하고 있다.

부처의 불멸 이후 탑에 대한 예배의 방법은 일찍부터 경전에 잘 알려져 있으며 신라의 경우에도 경전과 사리가 들어옴에 따라 경전 속에 탑에 대한 예배 방법이 기록되어 있으므로 그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 것이며 수많은 탑이 건립됨과 동일하게 탑에 대한 예배 방법이 있었음이 추측¹⁵⁾되는데 탑돌이를 예배방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삼국유사> 권(卷)4 (감통)感通7 김현감호조(金現感虎條)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내용은 탑돌이가 흥륜사에서 행해진 부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신라인들은 2월 8일부터 15일¹⁶⁾까지 흥륜사의 전탑을 돌면서 행해진 탑돌이는 흥륜사가 신라왕실의 국찰이면서 포교력과 불심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는 사찰¹⁷⁾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金現感虎의 첫머리에 있는 “신라의 풍속으로 매년 음력 2월에 서울의 남녀들이 앞을 다투어 불탑에 예배했다.”는 기사는 일반 대중들의 불교신앙과 실천을 보여주는 한 사례로서 신라불교의 대중

14) 우인보, 『탑과 신앙』, 서울, 도서출판 해조음, 2013, p.187

15) 박은애 앞의 글 p.128.

16) 전통적인 태음력의 경우 동지부터 한 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아 현재 사용하는 음력과 약2달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전통적인 음력과 현재 쓰는 음력의 차이는 2개월 정도 이므로 원시경전에서는 석가의 탄신일을 2월 8일이지만 현재 석가탄신일은 4월 8일로 보게 된다.

17) 김복순, 「興輪寺와 七處 伽藍」, 『新羅文化』, 20호 pp.40~45.

화를 보여 주는 것과 동시에 해마다 같은 시기에 반복되는 주기전승 의례의 형태로 나타난다.

『高麗史』「禮志」에 의하면 태조 때는 정월 대보름날에 거행하였고, 대개는 2월 망월인 寒食날을 택하였으며, 성종은 번거롭다하여 폐하였으나 다시 성종 2년(983) 2월에 청주 행궁에서 연등회를 베풀었다고 한다. 사월초파일은 절에서 불공을 드리고 연등의식과 제등행렬, 혹은 등을 들고 불탑 주위를 도는 ‘탑돌이’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풍속은 고려시대 연등회에서 민속적인 형태를 띠면서 연행되었다. 모든 사람들이 마을을 밝혀 불교의 진리로 귀의하고자 하는 기원과 함께 처음 불교적인 의식에서 시작되었으나 세시풍속 중 하나의 행사로 정착된 것이라 할 수 있다.¹⁸⁾ 불교의례에서 대중적인 축제의 형태로 습합된 탑돌이는 조선 후기 이래로 〈백팔정진가(百八精進歌)〉와 같은 남도민요풍의 노래를 부르며 탑돌이를 하는 방식으로 다양화¹⁹⁾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교의 ‘대중화’라는 부분이다. 탑돌이를 종교적 성격으로 다루는 관점에서 무엇보다 탑돌이가 세시풍속 속절(俗節)의 하나로 대중들이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의례의 성격을 가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흔히 우리들은 세시풍속이 생활문화 중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사월초파일 봉축행사에서 함께 행해지는 탑돌이는 본질적으로 부처님에 대한 예배의 형태이지만 종교적이면서 민간신앙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부처에 대한 공양과 개인의 소망을 동시에 기

18) 이혜영, 민요 ‘탑돌이’ 주제에 의한 25현 가야금 변주곡 “만월”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3~4쪽.

19) 김준오, 천득염 (2011) 앞의 글 p.57

원하는 것이면서 이제는 사월초파일 각 사찰에서 진행되는 불교의례 이면서 일 년 중 일정한 시기에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세시풍속의 한 형태로 만들어진 불교민속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다.

Ⅲ. 민속연행으로 재현되는 탐돌이

2012년 4월 6일, 이 날은 ‘연등회’가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날이다. 연등회의 중요무형문화재 등록은 2009년 1월 신청서를 제출한 이래 약 4년 만의 결과이다. 이 연등회의 시대별 콘텐츠 중 ‘탐돌이’가 하나의 중요무형문화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는 부분은 매우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의 한 구성요소로서 전술한 삼국유사의 김현감호 조에 등장하는 것을 기반으로 탐돌이가 연등회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그것이 실제 연등회에서 재현되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는 연등회의 긴 역사성에 비추어 볼 때, 각 시대별 원형을 발굴 복원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전체 행사 중 일부분으로 다소 다양한 형태로 재현되는 것이 아닌 우요삼잡이라는 것으로 대변되는 단순한 의례행위가 가져오는 한계일 수 있다. 다만 이것을 탐돌이의 행위에만 주목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고 그것이 축제의 형태로 승화된 부분에 더욱더 의미를 둔다는 전제로 다시 한 번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신라시대에 복을 비는 모임이라는 의미로 ‘복회(福會)’라 부르며 많은 대중이 참여한 탐돌이는 여전히 민간신앙의 한 형태로 의례로

전승되어 왔고 당시 많은 대중이 참여한 것을 본다면 축제의 한 형태로 승화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다. 윤덕경²⁰⁾은 탑돌이는 불교의식의 하나로 절 주도로 행하는 경우가 있고 민속놀이처럼 스님과 신도, 일반 마을 사람들이 참가하는 민속연회적 성격을 띠기도 한다고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탑돌이를 불교의례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민속연행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최근에 단순히 민속연회를 재연하는 노력만으로 된 것은 아니다. 충청도 지역의 마을 신앙 중 탑제가 전승되어 온 것이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의 탑돌이가 전승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주지역의 ‘중앙탑돌이²¹⁾’를 연구한 이창식²²⁾은 이 지역민들이 중앙탑에 대한 의식이 있어 초파일, 추석에 탑을 돌면서 기원하는 행사를 했다고 한다. 이는 사찰과 무관하게 지역민의 자생적으로 생겨난 것이고 지역민의 신앙의 대상으로 탑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의례가 민속화하여 민속불교의 문화양상으로 자리하였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그는 불교와 민속이 만난 대표적 상징물이 탑이고 그 행위 전승은 탑돌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지역의 탑제(塔祭)가 마을신앙으로 전승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 탑제를 지내는데, 이를 탑신앙의 민속형태로 보고 신목, 장승, 선돌 등에 견주어 마을 입구에 세워진 하나의 민간신앙의 형태로 볼 수 있다

20) 윤덕경,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탑돌이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연구』 Vol. 21, pp.123~136, 200315) 박은애 앞의 글 p.128.

21) 중앙탑돌이는 국보 제6호로 지정된 ‘중원탑평리칠층석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리적으로 중앙부에 위치한다고 하여 ‘중앙탑’이라고 불린다.

22) 이창식, 「충주지역 중앙탑돌이의 현상과 활용방안」, 『지역정책연구』, 충북발전연구원, pp.63~77, 2002

고 설명한다.

민속연행의 특성상 구전과 제한적인 자료조차 찾아보기 힘든데, 특히 원형을 그대로 찾아서 복원 내지는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청도 지역의 탐제가 마을신앙으로 전승되어 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기 위하여 제사를 지내는데 이것도 탐신 신앙의 형태²³⁾로 본다.

다른 사례로서 1977년 9월 춘천고등학교에서 열린 제1회 태백문화제에 월정사 탐돌이가 재연되었고 이는 민속예술경연 성격의 문화제에 월정사 탐돌이는 민속놀이 부분에 참가하였다. 같은 해 10월 수원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월정사 탐돌이가 강원도 대표로 참가한 바 있다. 그 이후 1978년 평창군의 노성제(魯城祭)에 민속놀이로 공연하고 1992년 강원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 이처럼 월정사 탐돌이는 종교의례이자 강원도의 전통 민속놀이로 자리를 잡았다.²⁴⁾

문헌자료의 내용들과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살펴본 한국의 탐돌이는 한반도에 불교가 수용된 이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역사적 전개의 흔적으로 삼국유사의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통일신라 이후에 불교의 대중화가 전개되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지만 의례의 절차와 규모 등에 대한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사료와 관련 문헌 연구를 활용하여 보더라도 그 원형을 재현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각 지역에서 민속의 일환으로서 탐돌이를 기반으로 하는 불교민속의 재현시도는 이

23) 윤덕경, 앞의 글 p.135

24) 구미래, 2014, 「월정사 탐돌이의 민속과 계승방안」, 『한국선학』 V.37 p.216

루어지고 있다. 전술한 월정사 탑돌이도 그 사례 중 하나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전통문화인 동시에 살아있는 문화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이 자신들의 환경, 자연, 역사의 상호작용에 따라 끊임없이 제창해온 “관습, 표상지식과 기술은 물론 이와 관련된 전달도구, 사물, 공예품 및 문화공간 모두를 의미”한다.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내에서 공유하는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통해 생활 속에서 주로 구전에 의해 전승²⁵⁾되어 왔다. 이를 재현하고 원형을 복원한다는 것은 민속의 전승의 주체와 대상이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진행되는 것이므로 결국 사람이 의례의 중심이자 주체가 되는 상황이다.

이 ‘무형문화유산’의 성질은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다고 한다.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다는 표현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시적, 공시적 두 가지 시각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하고 그 깊이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예술 분야의 그것과는 다른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그것이 세대를 반드시 이어서 전승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닌지, 다시 말해, 몇 세대여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을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사회 및 집단이 자기의 환경, 자연과의 상호작용 및 역사에 대응하여 끊임없이 재현되고, 해당 사회 및 집단에 정체성 및 계속성의 인식을 부여함으로써, 문화의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돕는다.’ 즉 ‘끊임없이 재현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재현된다는 것이 아니라, 전승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그것의 깊은 의미는 하나의 전승형태로 본다면

25)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http://www.nihc.go.kr/nihchome/html/HtmlPage.do?pg=/KO/heritage/sub_02_01_01.jsp&mn=KO_02_01

무형문화유산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이 자리를 잡고 있다는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살아 있는 유산이고, 살아 있는 유산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개념에 입각한 표현인 것이다. 동일한 형태로 동일한 내용을 계승해서 행하더라도 매번 새로운 창작행위이고, 재창조(re-creation)인 것이다. 그것은 결국 세대를 이어가는 사람들은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무형문화 중 전통적인 의식이나 무대뿐 아니라 전통공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은 세대를 이어온 긴 시간의 길이를 가진 것으로 전승을 통해서 이어져 온 전통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있는 인간의 신체를 통해 ‘지금, 여기’에 표현²⁶⁾된다. 지난 2012년 4월 6일 “연등회”는 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로 지정된 바 있다. 전술한 바 있지만 탑돌이는 『우요불탑공덕경(右邊佛塔功德經)』에는 탑을 돌면 태어나는 곳마다 8년이 없는 무난처에 태어나는 등 믿음의 실행인 탑돌이가 사람에게 39가지 공덕을 베풀을 설하고 있다. 탑 주위를 바른 믿음으로 돌기만 해도 그 공덕으로 인해 더없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신라시대에도 이어져 부처님을 모신 탑을 도는 것이 경배의 대상으로서만이 아니라 복을 빌거나 복을 받는다는 복회(福會)의 관념으로까지 확대²⁷⁾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기록으로 볼 때, 오히려 시기적으로 탑돌이가 연등회보다 먼저 행해졌고 고려시대에 불교가 융성한 덕분에 탑돌이가 확대 재생산된 유형이 연등회로 확대된 것이 아닌가 한다.

26) 임경택, 심재석 「무형문화재·무형유산보호정책의 전개과정」 미발표 연구논문, p.7, 2015

27) 고상현, 「연등회의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강화 방안 연구」, 『한국불교사연구』, p.192~193, 2014

IV. 불교민속에서 탐돌이의 상징적 의미

최근에는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다른 분야의 학문의 이론, 연구 방법의 장점을 활용하여 새롭게 이론을 정립하고 연구방법을 정교하게 다루고자 학제간의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를 통한 연구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불교학과 민속학도 이런 관점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불교민속학 또는 민속불교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영역이 성립되어 그 연구 성과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를 처음 시도한 것은 1980년에 간행된 홍윤식의 『불교와 민속』이라는 저서가 간행되었고 2002년 한국불교문화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²⁸⁾의 주제 중 하나로 「불교와 민속」이라는 부문이 있었다.

불교민속은 민간신앙이나 민간전승의 체계 속에서 불교가 체계적으로 수용되었을 때 그 개념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면서 불교가 풍토적 조건과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전파되고 동시에 시간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수용되어짐에 따라 본체로서 불교사상이 생활로 활용되고 문화구조 자체로 자리 잡고 있을 때 그것을 ‘불교민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²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의숙은 불교와 민속의 만남으로 새롭게 응용되어 만들어진 영역인 불교민속학 또는 민속불교학은 두 가지 표현을 쓸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 개념과 학문의 성격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교민속의 성격은 민(民)의 생

28) 불교문화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는 언급한 불교와 민속, 불교와 문학, 불교와 서지, 불교와 미술 불교와 음악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2002년 5월 25일 계룡산 갑사에서 개최된 바 있다.

29) 홍윤식, 불교민속의 범위와 성격,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1996. p.12

활 속에서 불교가 체계적으로 수용되어 그 개념이 정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불교가 풍토적 조건, 사회적 조건에 따라 전파되고 동시에 시간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수용되어짐에 따라 불교사상이 생활로 활용되고 문화구조 자체로 자리잡고 있을 때 ‘불교민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³⁰⁾고 한다.

불교와 민속의 습합이라는 주장은 임동권의 “샤머니즘의 교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무과정의 현실과 민중의 신불심과, 자기네의 상승작용에 의한 것이다.”라는 주장과 홍윤식은 “본연의 불교의례로서 자행의례가 대승불교의 발전에 따라 타행의례화 한다는 것은 한편 불교로 하여금 재래의 민간신앙을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³¹⁾는 주장이 있다. 이와 같은 주장은 불교와 민속이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게 되어 불교가 대중과 함께 하는 과정에서 민속을 수용하게 되어 포교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를 적용한 것이다.

탑돌이는 불교사찰에서 시행되는 종교적 의미이다. 탑을 설명하는 영문명은 파고다(pagoda), 스투파(stupa)라고 쓰인다. 실제 사찰에서 볼 수 있는 탑은 인도어 스투파가 중국에서 탑파라고 불리던 것이 우리는 탑으로 표기하게 되었다. 그 탑을 중심으로 행하는 의례가 바로 탑돌이이다.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는 곳으로 만들어진 탑은 석가모니부처님을 생각하고 그 가르침을 새김으로써 그 가르침을 한번 더 생각하는 상징 조형물로서 탑에 참배하러 온 신도들이 탑을 바라보면서 신앙심을 더욱 키우는 상징적 공간이다.

다시 말해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봉안한 탑은 바로 부처를 상징하

30) 김의숙, 「불교민속학의 현장과 전망」, 『불교문화연구』 제1집 2003년 p.103

31) 홍윤식,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1996, p.14

는 대상이므로 석가모니부처님의 영원한 신체인 사리가 모셔진 곳이며, 탑이라는 공간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지칭한다. 탑을 사찰 내에 세우게 되는 것은 석가모니부처님에 대한 한없는 공경을 의미하고 석가모니부처님을 경배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탑을 세운 조탑(造塔)을 통해 석가모니부처님에 대한 공경의 의미로 탑돌이 공덕을 쌓는 의식행위를 하게 된다.

탑을 중심으로 석가모니부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돌기만 해도 그 공덕으로 더없는 깨달음을 얻게 되고 그 연유로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사찰에서의 다른 행사와 함께 공존하게 되고 탑을 중심으로 행하였던 우요삼잡(右繞三匝)의 습속이 민간 속에서 전승되어 온 중요한 민속으로 남아 있다. 그렇다면 탑돌이의 불교민속에서 상징적 의미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불교의례 중에 하나로서 사월 초파일에 행해지는 의식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던 탑돌이는 사찰에서 승려가 탑을 돌면서 석가모니부처님의 공덕을 새기면서 도는 것을 신도들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불교의식이고 불교의 대중화가 민간의 참여로 점차 불교의 대중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전파되면서 개인에게는 가정의 평화와 안녕을 기원하는 형태로 변모³²⁾ 되었다.

탑돌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는 불교의 전래와 사찰의 구조, 형식 등과 연관하여 가람의 배치 속에 탑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석가모니부처님을 의미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부처님에 대한 공경과 개인의 기원을 하는 불교의례로서 가지는 의미와 함께 한 사람이 아닌 대중들이 스님들과 함께 공동으로 탑을 중심으로 치러지는 의례과정인

32) 오출세, 「세시풍속에 미친 불교민속」, 『한국불교문화연구』 제5집, p.194, 2005

행해진다는 점에서 이는 불교에서 탑돌이가 기원되었음에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민간의 의례와 불교의 의례가 습합하여 민속화되고 하나의 놀이의 형태로 재현되는 것으로 탑돌이의 원형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는 것에서 탑돌이를 하는 주체가 사람이라는 점이 가지는 의미가 분명히 존재한다.

결국 탑돌이가 한 지역 또는 사찰에서 민속화되었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고 탑돌이에서 파생되어 나타나는 다양한 놀이의 형태 또는 의례의 한 형태를 보면서 구체적으로 의례절차는 없어졌더라도 지역적인 특성보다 사람이 중심이 되어 그 의례가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탑돌이의 의례과정은 각 지역에서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다시금 문헌, 지역의 조사과정을 통하여 재검토하여 동일한 의례절차가 이루어지는 상황에 대한 보충조사가 추후 지속적으로 불교민속에서 연구하고 다루어져야 할 연구대상이다.

V. 나가는 말

탑신앙이 의례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탑돌이’이다. 주지하다시피 여러 경전과 사료에서 탑신앙의 공덕을 강조하면서 그것이 의례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2000년 이상 시간이 내재되어 있는 ‘탑돌이’는 본질적으로 종교적인 의미가 강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점차 민간에서 세속화되면서 민속놀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자연스럽게 탑을 향한 발원의 행위로도 탑돌이를 행하였다. 즉 탑돌이의 의미론적 의식을 바탕으로 발전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기능적인 이유의 ‘성밟기’와 같은 민속놀이화 형태를 보이는 것이나 ‘탑제’ 같이 형태론적 유사성

에 의한 의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탐돌이 의식은 민속의례의 하나로서 일반 대중의 기저에 내재하는 의식이며, 하나의 민속행위로 대변되는데 이러한 양상은 ‘뚝다리밟기’, ‘강강술래’ 등의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불교민속학적 시각에서 추가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계방향으로 세바퀴 돌아라.’는 ‘우요삼잡’ 의식이 반영되어 일반대중의 개인적인 기복과 함께 불교예불 방식의 하나로 불교신앙으로 자리매김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탐돌이 의식은 형태적으로 보았을 때 본질적인 의식의 행위는 약화되거나 변화되어 연행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성격을 달리하면서 불교의례에서 많은 수의 대중들이 참여하면서 민속 연행이 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민속종교로서의 풍속과 놀이문화로 자리 잡은 것이다.

축제의 한 형태로서 탐돌이가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민속학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탐돌이의 역사성에 기초한 대중과 함께 호흡해 온 부분에 대하여 논의가 앞으로 더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학제간의 연구와 응용학문으로서 불교민속학이 부상하게 되는 것으로 불교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민의 개입으로 좀 더 학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불교민속학의 새로운 연구 성과를 내고자 하였다. 다만 그동안 불교와 민속의 만남은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었으나 불교민속학의 연구대상 중 불교구비전승 분야의 성과를 거울로 삼아 공동체와 함께하는 의례 분야, 민속예능 분야, 민속신앙 분야와 함께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민속학계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탐돌이는 여전히 혼자만 하는 의례가 아니라 공동체적 의식으로 많은 대중들이 참여하는 의례의 형태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탐

돌이의 중요한 특성으로 대중이 참여하는 것이 바로 민에 의한 의례, 놀이, 그리고 더 나아가 축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즉 공동체적 성격의 놀이가 바로 축제라고 본다면 대중의 보편적 사고가 반영되어 자연스럽게 자생적으로 생겨난 형태로서 ‘탐돌이’가 가지는 불교 민속학적 의미를 한 번 더 새겨볼 필요가 있다.

다만, 탐돌이라는 제한적인 주제를 대상으로 불교민속의 시각으로 연구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문헌자료와 연구 성과에 기대어 도출된 연구결과로서 현장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민속학의 연구 방법과는 다소 동떨어진 문헌 및 관련 연구 성과를 중심으로 연구한 부분이 향후 심층 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 지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돌이의 불교신앙적인 부분과 민속을 접목하여 응용민속의 한 연구대상으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탐돌이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논문은 탐돌이를 민간신앙과 불교신앙의 매개로서 추가적인 문헌조사와 다양한 자료의 발굴 그리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심층 분석에 의해 보충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본 연구의 성과로 보고 다양한 자료의 수집, 해석, 그리고 현장을 기반으로 한 연구와 자료의 보충을 추후 연구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 강인구, (譯註) 三國遺事, 韓國精神文化研究院 [편], 以會文化社, 2002
- 고상현, 「연등회의 무형문화유산 콘텐츠 강화 방안 연구」, 『한국불교사연구』, pp.185-228, 2014
- 구미래, 「월정사 탑돌이의 민속과 계승방안」, 『한국선학』 V.37, pp. 208-245, 2014
- 김복순, 「興輪寺와 七處 伽藍」, 『新羅文化』, 20호 pp.40-45, 2002
- 김의숙, 「불교민속학의 현장과 전망」, 『불교문화연구』 제1집, pp.81-103, 2003
- 김준오, 천득염. 「탑돌이 유형과 민속적 전개」, 『남도민속연구』, Vol.22, pp.31-74, 2011
- 박은애 『三國遺事』 感通 ‘金現感虎’條에 나타나는 신라 탑돌이의 양상과 성격, 신라 문화제학술발표논문집, Vol.32, pp.113-144, 2011
- 안대환, 김성우. 5세기 고구려 사찰의 8각 목탑에서 탑돌이시설의 가능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 계획계, Vol.30, No.6, pp.105-115, 2014
- 오출세, 「세시풍속에 미친 불교민속」, 『한국불교문화연구』 제5집. pp.181-201, 2005
- 우인보, 『탑과 신앙』, 서울, 도서출판 해조음, 2013
- 윤덕경, 「속리산 법주사 팔상전 탑돌이에 대한 연구」, 『한국무용연구』 Vol. 21, pp.123-136, 2003
- 이창식, 「중주지역 중앙탑돌이의 현상과 활용방안」, 『지역정책연구』, 충북발전연구원, pp.63~77, 2002
- 이혜영, 「민요 ‘탑돌이’ 주제에 의한 25현 가야금 변주곡 “만월”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 홍윤식,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서울, 1996.

- 국립무형유산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http://www.nihc.go.kr/nihc/home/html/HtmlPage.do?pg=/KO/heritage/sub_02_01_01.jsp&mn=KO_02_01(검색일자 2015.11.20.)
- 대정신수대장경 1권 251쪽 하단
佛尊過諸天 鬼神不能當 低頭遶塔寺 叉手禮十方
http://21dzk.l.u-tokyo.ac.jp/SAT2012/T0000_.01.0251c23:0251c23.cit
- 대정신수대장경 16권 801쪽
皆由以身業 及語業讚歎 右繞於佛塔 右繞佛塔功德經
http://21dzk.l.u-tokyo.ac.jp/SAT2012/T0700_.16.0801b23:0801b23.cit
- 문화콘텐츠닷컴
http://www.culturecontent.com/dictionary/dictionaryView.do?cp_code=cp0517&dic_seq=24(검색일자 2015.11.20.)

The View of Buddhist Stupa Beliefs and Folklore:

Why People walk around the Stupa?
their Beliefs and Folklores

Shim, Jae Seok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Pagoda, also named as tapa or stupa, are the places where the Śarīra(Relics of Buddha) are enshrined. Stupas are symbolic sculptures of Buddha's nirvana. They inspire worship and reverence as symbolic constructions; and as targets of worship, they serve as sources of good practices and good fortunes.

The orientation of stupa in Buddhist temple has its root in the Buddhist sacred scriptures. Therefore, stupas are structures of equal importance to Daeungjeon, the main building of temples. In that light, stupas are significant in Buddhist theology and Buddhist rituals as the place of holding important Buddhist symbols. Many scholars have already researched the aesthetic quality and different styles in the fields of art history and history of construction. Tapdoli Stupa walk-around for good fortune, is an important topic in folklore of Buddhism.

The paper took an ethnological, folkloristic analysis of Tapdoli

practiced among the Buddhists around pagodas in Buddhist temple. Confirming the existence of Tapdoli in the Buddhist scripture as Buddhist temple syncretized and localized over time interacting with Taoism and folk beliefs in forms of Chilsunggak and Sanshingak. The paper focused on Tapdoli as a form of folk ritual rather than the orientation of stupas and their symbolic meanings.

Keywords : Tapdoli, Folklore of Buddhism, Buddhist Ritual, Folk Ritual,
Intangible Cultural Property